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축출산

전주는 자매님이 아들 정시현군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난 주 (7/12/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4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7월 19일 (665호)

전환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주연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4:21-31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두 여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26/26	8/2/26
이우선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돌아가지 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어렵게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즉 내 인간적인 모든 선택을 무력화시킴으로서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곧 세례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얼마가지 못해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도자까지 바꿔가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 없는 상태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간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기에 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를 하심으로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마저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만으로 바라보기에 그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도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초반에는 아주 무섭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부드럽게 어조를 바꿉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정죄가 아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허니문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바울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했고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들어오자 그 감격은 사라졌고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 가려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때 그 감격이 어디로 갔냐면서, 복음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때는 정죄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당신들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전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사실과 복음은 징계처럼 칼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